

'메시-호날두-지단-모드리치-라모스 포함', UCL 역대 베스트 11 공개

UEFA 챔피언스 리그 올타이 베스트 11이 공개되었습니다.

포메이션은 4-3-3이었습니다. 공격진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카림 벤제마,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벤제마는 2009년 레알 마드리드에 입단한 이후 14년 동안 팀에서 활약한 전설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트로피를 다섯 번 들어 올렸습니다. 작년에는 '프랑스 풋볼'이 선정한 발롱도르도 수상했습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역사에 이름을 남긴 공격수입니다. 호날두는 챔피언스리그 최다 출전 기록(183경기)과 챔피언스리그 최다 득점 기록(140골)을 모두 보유하고 있습니다. 호날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번과 네 번 차지했습니다. [토토사이트 추천](#)

메시는 호날두에 이어 챔피언스리그 득점 2위(129골)를 달리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6년 동안 챔피언스리그에서 4번의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발롱도르는 7개의 상을 수상하며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토토사이트](#)

미드필더는 지네딘 지단, 루카 모드리치, 안드레스 이니에스타였습니다. 지단은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입니다. 2001/02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에서 환상적인 원발 발리슛으로 결승골을 터뜨리며 레알 마드리드에 우승을 안겼습니다.

모드리치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미드필더입니다. 토니 크로스, 카세미루와 함께 압도적인 미드필더진을 구성했습니다. 모드리치는 2015/16년부터 2017/18년까지 레알 마드리드의 챔피언스리그 3연패 선수였습니다. 2018년에는 발롱도르를 수상하며 메시와 호날두의 2파전을 꺾습니다. [스포츠 토토사이트](#)

이니에스타는 메시, 차비 에르난데스와 함께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바르셀로나의 황금기를 이끌었습니다. 그는 유소년 시절을 포함해 2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뛰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차지했습니다. 2008/09년과 2014/15년에는 트레블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비는 마르셀로-파울로 말디니-세르지오 라모스-다니엘 알베스가 맡았습니다. 마르셀로는 레알 마드리드의 왼쪽 측면을 책임지는 오랜 풀백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정상에 네 번이나 올랐습니다.

말디니는 **1984년 AC 밀란**에 입단하여 **2009년까지 21년** 동안 한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AC 밀란**에서 다섯 번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1988/89 시즌**과 **1989/90 시즌**에도 **AC 밀란**의 대회 2연패에 기여했습니다. [메이저사이트](#)

라모스는 레알 마드리드의 전성기를 함께 보낸 수비수입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를 위기에서 구해냈습니다. **2013/14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후반 추가시간에 터진 헤더 골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 트로피를 네 번이나 들어 올렸습니다.

알베스는 바르셀로나가 유럽을 지휘할 때 오른쪽 측면을 책임졌던 풀백이었습니다. 그는 바르셀로나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세 번 차지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바르셀로나에서 뛰었던 알베스도 **2021년 11월** 잠시 바르셀로나로 복귀했습니다

골키퍼는 이케르 카시야스였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유소년 팀에서 자란 카시야스는 레알 마드리드에서 **16년** 동안 뛰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반사 신경으로 레알 마드리드 골문을 지켰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은 팀에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세 번이나 차지했습니다.